

대학평의원회

- 1. 회의제목 : 대학평의원회(23.1.18)
- 2. 회의일시 : 2023-01-18 수 10:00 ~ 12:20
- 3.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4. 참석인원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인원	10명	최종란,임상순,이진,박재현,조종건,김수우,김용화,최진민,김정웅,최강재
불참인원	2명	최승희,구자경

5. 회의안건

- 가. 의장 및 부의장 호선
- 나. 학칙 개정(안) 심의 의결
- 다. 2022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 라. 2023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 마. 기타안건

6. 내용첨부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_2023.1.18_최종.pdf 별첨

7. 의 견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3.01.18

의	장	최	종	란	2023/01/26 확인
위	원	임	상	순	2023/01/26 확인
위	원	이		진	2023/01/26 확인
위	원	박	재	현	2023/01/26 확인
위	원	조	종	건	2023/01/29 확인
위	원	김	수	우	2023/01/31 확인
위	원	김	용	화	2023/01/26 확인
위	원	최	진	민	2023/01/26 확인
위	원	김	정	웅	2023/01/27 확인
위	원	최	강	재	2023/01/26 확인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3. 1. 11.(수)
위원정수 : 13명	재적위원 : 12명

1. 회의일시 : 2023. 1. 18.(수) 10:00
2.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309호)
3. 참석여부

구분	성명	비고
참석인원 (10명)	최종란, 이진, 임상순, 김용화, 김정웅, 최진민, 최강재(조), 김수우(외), 조종건(외), 박재현(학)	간사 : 손명현 서기 : 임수현
불참인원 (2명)	구자경, 최승희	-

※ 이상무 기획평가처장(이하 "기획평가처장") 배석

4. 안건

- 가. 의장 및 부의장 호선
- 나. 학칙 개정(안) 심의·의결
- 다. 2022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 라. 2023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 마. 기타 안건

5. 회의내용

가. 개회

손명현 기획예산팀장(이하 "간사")이 대학평의위원회 재적인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되었음을 공표하고 회의를 개회하다.

1) 의장 및 부의장 호선

- 간사 : 의장이었던 이시화 의원이 평의원을 사퇴하면서 의장을 새롭게 선출해야한다. 또한, 부의장도 현재 공석이므로 의장 선출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 이진 의원 : 추천을 먼저 하고, 이후 거수로 투표하는 것으로 하자.
- 조종건 의원 : 의장 및 부의장은 외부위원은 할 수 없는 것인가?
- 간사 : 전혀 관계없다.
- 임상순 의원 : 관례적으로 제일 연장자가 의장을 맡아왔기에 현 최고 연장자인 최종란 의원을 추천한다.
- 조종건 의원 : 학교에 대해 제일 오래 계셨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므로 임상순 의원의 의

견에 동의한다.

- 이진 의원 : 임상순 의원이 전 의장님을 도와 상황을 많이 알고 있으니 임상순 의원을 의장으로 추천한다.
- 임상순 의원 : 학교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대표를 맡기엔 스스로 부족하다. 관례대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추천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추천을 거부하겠다.
- 간사 : 임상순 의원은 고사하였기에 최종란 의원에 대해 거수로 동의, 반대를 투표하겠다.
(만장일치로 최종란의원(이하 “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된다. 이후 신임 의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 의장 : 부의장에 대한 선출 방식도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 김정웅 의원 : 부의장도 후보를 추천하여 거수 투표하자.
- 의장 : 동의한다. 추천해주길 바란다.
- 김정웅 의원 : 오랜 기간 평의원 활동을 통해 가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최진민 의원을 추천한다.
- 조종건 의원 : 부의장은 꼭 1명만 해야하나? 김수우 의원을 추천한다.
- 간사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되어있다.
- 의장 : 그렇다면 최진민 의원과 김수우 의원 중 거수로 투표하겠다.

(만장일치로 최진민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된다.)

2) 학칙 개정(안) 심의 · 의결

(기획평가처장이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 : 글로벌리더스융복합전공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복합전공명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공연영상콘텐츠학과외의 경우 학과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안건으로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간사 : 먼저 글로벌리더스융복합전공의 경우 기존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위이다.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휴학생, 제적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학위는 유지해야 한다.
- 기획평가처장 : 학과명 변경을 하기 위해선 우선 단과대별로 내부 검토를 진행해야한다. 이번에 공연영상콘텐츠학과에서 학과명 변경을 진행하고자 했고, 해당 단과대인 문화예술대학에서 검토하여 기획예산팀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보내주었다. 이에 교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으나 다음에 진행될 예정이다
- 의장 : 다음에 진행되면 언제 학과명이 변경되어 적용이 가능한가?
- 간사 : 2024학년도부터 적용된다.
- 이진 의원 : [별표 1]은 학부·학과별 입학정원표인데 피어선칼리지, 융복합전공은 입학정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꼭 이 표에 들어가 있어야하는 것인가? 매년 해당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없어질 텐데 계속 개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간사 : 융복합전공도 일단 하나의 전공이기 때문에 학칙에 반영되어 있다.
- 김용화 의원 : 현 수업팀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정기학과 외 가상의 학과인 융복합 연계전공 등을 각종 평가를 받을 때 명시하게끔 되어 있다. 모두 학칙에 기재하여 운영하는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원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의장 : 대학본부는 융복합전공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할 것 같다. 구체적인 안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향후 융복합전공 교수들에게도 충분히 이해시켜줘야 한다.

- 김수우 의원 : 학과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표가 없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변경할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 의장 : 네 외국의 경우도 학과명이 자주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시 현실은 신입생 경쟁률이 여러 면에 지표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수험생들이 전공에 따라 학과명에 영향을 받고 지원하기 때문에 학과 교수님들도 학과명 변경에 대한 검토 시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진민 의원 : 미운영되고 있는 융복합전공들의 학위가 다 폐지되고 있는데 빅데이터융복합전공, 반도체디스플레이 융복합전공 이런 전공들은 사실 시대흐름을 보면 유지되었으면 좋았을 전공들인 것 같아 안타깝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융복합전공 외에 자율전공, 학생디자인 설계전공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본 전공과 함께 다양한 전공제도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 김용화 의원 : 2017년도에 학과구조개편을 하면서 처음 융복합전공을 설치 운영했었는데 개설 당시에 융복합전공은 가상의 전공으로서 별도의 재원없이 설치·운영된 학과였다. 이후 총 13개의 융복합전공 중 적정수의 지원자가 있어 필요한 운영재원이 확보된 융복합전공들만 유지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융복합전공 지원자의 감소로 2020학년도부터는 융복합전공을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현재 재학생들이 있는 융복합전공은 끝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융복합전공은 폐지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시스템융복합전공과 같이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되고 있는 전공도 있다.
- 김수우 의원 : 삼성전자에서 평택에 8공장까지 건설하는데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는 이 근방에 2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가 향후 일부 권한을 지자체에 넘긴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평택시에서도 대학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스마트모빌리티학과나 반도체 관련 학과를 잘 운영해야 향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고 학생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평택시의 대학 지원 예산이 국제대와 똑같이 편성이 되었다고 한다. 2년제와 4년제 차이는 굉장히 큰데 동일한 금액을 준다는 것은 학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조종건 의원 : 김수우 의원 말에 동의한다. 스마트모빌리티학과 같은 첨단학과의 설치와 운영에 대학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은 현재 평택시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 것 같다. 평택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재정 지원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장 : 평택시와 상시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장 :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없다면 동의·재청해주길 바란다.

(이진 의원의 동의와 김수우 의원의 재청으로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3) 2022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기획평가처장이 2022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항을 토대로 설명하다.)

- 기획평가처장 : 먼저 임의퇴직기금을 8천만원 적립하고자 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사학연금 대상자가 아닌 국민연금 대상자들의 전체 퇴직 예상 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맞추고자 함이며 현재 약 3억 원의 퇴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필

요한 퇴직 예상 금액은 약 3억 8천만 원이다. 그래서 8천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안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 김수우 의원 :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선 큰 이의는 없다. 퇴직금 적립은 노동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한 것 같다.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원 활동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교내 교원들이 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강사라도 불러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평생교육원이 다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 최강재 의원 :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조교 규정이 최근 개편이 되면서 학과당 1인의 조교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사라진 상태이다. 계약직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감축을 위해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 기획평가 처장 : 개정 조교규정은 현재 의견수렴 단계이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또한, 퇴직금 적립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며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퇴직을 하든, 당연퇴직이든 의원면적이든 어쨌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을 위해서 적립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건비 감축, 구조조정 등의 사유와는 전혀 무관하다.
- 의장 : 추가 사항이 없다면 이것으로 2022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을 마치겠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다.)

4) 2023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기획평가처장이 2023학년도 본예산(안)을 주요사항을 토대로 설명하다.)

- 임상순 의원 : 예산(안) 18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예산이 2022학년도보다 약 10억원이 줄었다. 주로 상여금과 사학연금이 빠져있다.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학년도엔 상여를 주지 않는 것인지, 사학연금은 왜 누락되었는지 설명해주기 바란다.
- 기획평가 처장 : 예산(안) 18페이지는 등록금회계에 해당되는 지출부이다. 전체 인건비를 보기 위해선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지출부를 봐야한다. 8페이지에 해당된다. 일부 상여 금액과 사학연금은 비등록금회계에 반영되어 있다.
- 김수우 의원 : 교직원 복지에 대한 금액은 없나?
- 기획평가 처장 : 제수당 계정에 복지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 최강재 의원 : 현재 학생들 과방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직원 복지에선 조교들은 제외되어 있다. 예산(안)을 보면 조교 인건비는 교원 보수로 분류되어 있고, 퇴직금은 직원 보수로 분류되어 있다.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교에 대한 수당도 전혀 없다.
- 기획평가 처장 : 학과방의 경우 현재 추진중에 있다.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학년도는 최소한 단과대학별로 1군데 이상씩은 공간을 확보하여 진행하기로 했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다.
- 김정웅 의원 : 조교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상 교직원의 분류에 포함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에 따라 교원보수 항의 조교인건비 목으로 분류·편성하고 있고, 조교 퇴직금의 경우 조교인건비 목에 편성·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대학의 경우 정규 교직원을 제외한 계약직 직원, 연구원, 조교의 퇴직금을 관행적으로 직원퇴직금으로 편성·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교의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은 조교인건비 목으로 별도 편성·운용할 수 있다.
- 최강재 의원 : 교원이든 직원이든 발생하는 수당들이 분명히 있고 복지가 있는데 조교는 어

- 느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
- 기획평가 처장 : 수당 항목의 신설을 말하는 것인가?
 - 최강재 의원 : 직원이든 교원이든 명확하게 분류하여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교원 쪽으로 소속된다면 교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의 일부라도 주면 안 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를 여쭙보고 싶다.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조교들은 그 어떤 복지 사항도 없어서 사실 기본급과 퇴직금밖에 없다. 같은 교내 구성원으로서 조급 차별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든다.
 - 김정웅 의원 : 2023학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학내 교비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회계 수입만으로는 앞선 몇 회계연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2023학년도 사업계획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예정된 재정기탁금을 학년도 초에 받는 것이 좋을 듯하니 학교법인 혹은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또한 2023학년도 본예산 교비회계의 비등록금회계 임의퇴직기금적립목에 조교, 연구원, 계약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한 것은 좋으나, 현재 재직 중인 인원 대비 편성된 적립금이 현저하게 적다는 생각이다. 특히, 향후 학과구조조정 및 인력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 추가검토하여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금 등을 추산하여 적립하는 것도 지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인건비가 높은 우리대학의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다. 2021학년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교원과 일부 직원(연봉제)들에 대해 미지급 성과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지급한다면 언제 지급할 것인지 설명 바란다.
 - 기획평가 처장 : 2021년도 성과급이 전년도에 비해 금액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00% 지급한 것이다. 다만, 그 금액이 관례적인 금액의 50% 수준이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주고자 했던 것이다. 올해 내에 지급하고자 방안들을 여러 가지 검토했으나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또 다른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산에는 반영한 상태이다.
 - 김수우 의원 : 교직원에 대한 복지 수준이 굉장히 낮다. 복리후생비 예산도 증가시키고, 복지 시설 관련해서도 전무하므로 한 번에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법인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한다. 재정기탁금이 없으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여전하며 이러한 사항은 새로 선임되는 총장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 최진민 의원 : 차기이월자금을 보면 똑같이 재정기탁금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보다 2023학년도에 더 줄었다. 재정기탁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되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인건비 부분에서도 최강재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교들도 최저임금의 수준만 받고 있다는 점도 고민해봐야 한다.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기본 인건비를 상승시켜주는 것도 방법이다. 합리적인 수준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사학 혁신지원사업으로 인해 교내 행사가 많이 늘었다. 지난 행사들을 돌이켜보면 너무 좋은 행사였다. 행사비를 확보하여 전체 교직원 세미나도 하면 좋을 것 같다.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출장비도 현재 매우 적은 상황이다.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또한, 실습실 컴퓨터도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직원들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김정웅 의원 : 예정대로 재정기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그대

로이다. 또 예정된 재정기탁금 총액을 염두에 두더라도 고정비용의 비중이 큰 우리대학의 재정구조상 지탱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3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학교법인과 대학차원의 재정확충과 재정지출 축소를 위한 자구노력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적·정무적 방안이 나와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금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2023학년도 사업계획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도 초에 재정기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학교법인과 이사회에 요청하였으면 한다.

- 김수우 의원 :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 학교는 어떤 목록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정리하여 이사회에 제안하여 예산 확보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여태까지 그러지 못한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며 동문회 차원에서도 얘기하겠다.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사회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 조종건 의원 : 변화의 시점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명확하게 정리하여 요청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자구책도 병행해야 한다. 평의회가 주체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무위원들이 열심히 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평의원 안에서도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장 : 재정 기탁금은 당연 연초에 들어와야 한다. 요청하면 좋겠다. 학교는 재정기여를 받지만 학교는 여전히 어렵다. 학교도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재정기탁금 사용이 대부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기획평가처의 계획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학교라는 특수성은 지금 이 시공간에서 만 학교에 머무는 학생들이 있다.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이나 등록금 동결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동결되어 온 교원의 임금 등 학교 구성원들이 재정 기여로 인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의원님들의 자문 내용을 정리하여 드려야 하는지?
- 기획평가 처장 :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았다
- 의장 : 추가 자문사항이 없다면 이것으로 2023학년도 본예산(안) 자문을 마치겠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칩니다.)

5) 기타 안건

- 최진민 의원 : 총장추천평가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임상순 의원 : 법인과 협의하는 협의 소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협의할 위원들을 이 자리에서 뽑았으면 좋겠다.
- 조종건 의원 : 전적으로 찬성한다. 객관적으로 얘기하기엔 외부위원이 적절하다. 김수우 의원을 추천한다.
- 김수우 의원 : 조종건의원이 더 잘 할듯하니 외부위원으로 조종건의원이 하면 좋을 것 같다.
- 김정웅 의원 : 의장, 부의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각 구성원들의 대표를 포함하여 5~6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의장 : 해당 안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셨기에 의장, 부의장 2인에 조종건 의원, 최강재 의원, 임상순 의원, 박재현 의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법인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6. 폐회

대학평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최종란 의장의 건의와 전체 위원의 동의·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2시 20분에 폐회하다.

2023년 1월 18일

